	<b>보도자료</b>	
	송출예정일: 2018년 5월 31일 (목)	
	문의	비플라이소프트 미디어분석팀 이경락 팀장 (010-7774-0430)
※ 본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b>서울시장 후보 관련 보도의 주간 미디어지수</b> <b>박원순 후보, 선거 행보 기사로 인해 가장 높은 지수 기록</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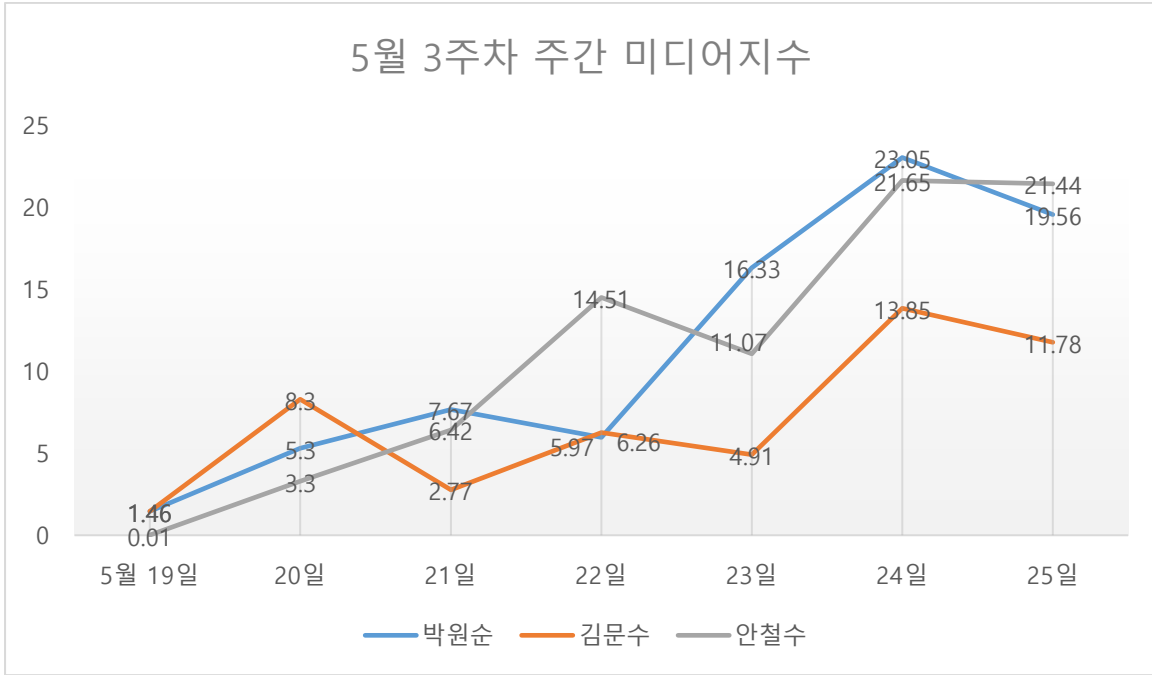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 미디어 빅데이터 운용사인 비플라이소프트는 주요 서울시장 후보의 미디어 지수를 발표하였다. 5월 4째주 주간 미디어지수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11.3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11.2로 근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의 경우 미디어의 주목도가 낮았던 이유로 미디어 지수도 7.0으로 낮게 나타났다.

비플라이소프트 미디어분석팀은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 돌입을 앞두고 자사의 뉴스 유통 플랫폼인 아이서퍼 프로를 통해 2018년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중앙일간지의 지면, 인터넷 뉴스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일간지는 총 16개사로 각각 후보명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미디어 지수를 추출하였다.

비플라이소프트의 미디어지수는 해당 주제에 대한 보도 빈도를 기준으로, 매체별 수용자 영향력, 기사에서 후보의 내용적 비중, 뉴스에 대한 정서적 특징에 가중치를 부여한 일간 지수이다. 특히 뉴스의 긍정/중립/부정적 성격에 따라서 영향력의 질적 특성을 평가함으로써 수용자들의 태도를 예측하는데 보다 심도 있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서울시장 후보인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후보의 일별 미디어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추이로 나타났다.

5월 3주차 주간 미디어지수



	5.19	5.20	5.21	5.22	5.23	5.24	5.25	평균
<b>박원순</b>	1.46	5.3	7.67	5.97	16.33	23.05	19.56	11.3
<b>김문수</b>	1.46	8.3	2.77	6.26	4.91	13.85	11.78	7.0
<b>안철수</b>	0.01	3.3	6.42	14.51	11.07	21.65	21.44	11.2

단독 및 핵심 비중으로 보도된 건의 경우 박원순 후보가 37건, 김문수 후보가 10건, 안철수 후보가 66건으로 안 후보 관련 보도가 가장 많았지만, 부정적인 뉴스들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미디어지수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주요 뉴스들은 송파을 지역을 두고 벌어진 당내 전략공천 잡음 내용과 강연재 노원병 보궐선거 후보의 안철수 후보 공격과 관련된 내용으로 음(-)의 값으로 나타나며, 부정적 영향력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뉴스의 주요 주제를 살펴보면, 여론조사 등의 선거 구도나 선거 행정, 단일화 이슈 등의 주제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당 내 문제 등에 관한 주제가 29.6%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바른미래당의 공천 잡음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정책과 관련된 주제는 9.2%로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고, 다른 후보에 대한 평가 등은 6.0%로 나타났다. 후보들의 행보나 기타 주제가 16.2%로 나머지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관련해 비플라이소프트의 이경락 미디어분석팀장은 '미디어의 생리상 선거기간 역시 갈등 프레임의 보도가 정책 관련 보도를 능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하며, '흑색선전이 아니더라도 선거기간에 갈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 영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실제로 박원순 후보의 경우 단독이나 비중이 높은 기사는 많지 않았지만, 주요 정책과 관련된 내용과 선거 관련 행보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됨으로써 높은 미디어지수를 보여주었다.

미디어지수를 분석한 비플라이소프트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뉴스 저작권 유통 계약을 맺고 있으며, 미디어 빅데이터를 유통/분석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지수 이외에도 기업들의 미디어 보도와 주가/거래량의 관계를 분석한 IR지수를 누구나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타이밍 (Timing)' 앱을 통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이팀장은 향후 공공기관의 정책홍보 성과, 기업의 CEO, 제품의 평판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미디어지수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